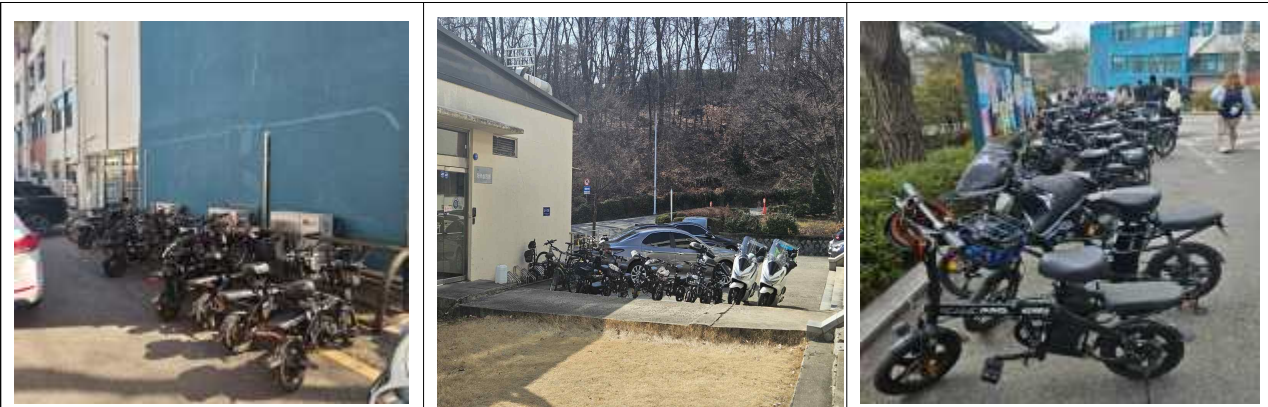


[참고 1] 2025학년도 캠퍼스 개인형이동장치 관련 추진 경과

- (2025년 3월) 외부 업체(카카오바이크, 일렉클 등) 공유 PM 교내 출입 및 주차 불가 시행
- (2025학년도 1학기 중) 학교 구성원 대상 PM 이용 인식 개선 노력
 - 오리엔테이션 등에 PM 이용 안전 교육, 캠퍼스 교통안전캠페인 실시, 안내문 게시
- (2025년 9월 15일) 교내 학생 PM-마을버스간 교통 사고 발생

- 대상: 학교 재학생 (관련 운전면허 미소지, 안전보호장구(헬멧 등) 미착용)
- 일시: 2025. 9. 15. 10:20분경
- 장소: 교내 도서관 앞 삼거리
- 경과: 전기자전거(원천관 방향 직진)-마을버스(도서관 방향 좌회전) 교통사고 발생
아주대 외상센터 구급 이송 후 입원치료(머리 열상 외 큰 이상 없음, 머리/목 CT 검사 완료)
학교측에서 주도하여 관련 사고 후속조치 실시

- (2025년 9월) 2025학년도 2학기 캠퍼스 PM 이용수칙 및 거점주차구역 조성 안내
 - 안전이용수칙 및 거점주차구역 마련하여 주차 후 교내 보행이동 안내
- (2025학년도 2학기중) 유관부서(유학생입학팀, 국제교육센터) 인식 개선 교육 실시
- (2025년 10월 2일) 수원남부경찰서와 협업하여 현장 교통안전캠페인 실시 및 계도
- (2025년 12월) 겨울방학 중 안전사고 사유로 개인형이동장치(PM) 캠퍼스 출입 제한
- (2026년 2월) 2026-1 개강 전 유관부서 오리엔테이션 시 PM 이용 안전 교육 실시
- (2026년 2월) 2026-1 개강 전 캠퍼스 PM 이용수칙 및 거점주차구역 조성 재안내
- (2026년 3월) 개강 후 캠퍼스내 PM 이용수칙 미준수 사례 다수 확인



캠퍼스내 거점주차구역 미준수(불법주차)



안전수칙 미준수(보행로 운행, 2인탑승, 안전모 미착용)

[참고 2] 캠퍼스내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관련 접수 민원 및 위험사례

- (학교에 바라는 글) 캠퍼스내 PM 역주행 통제 요청

정문부터 팔달관으로 올라가는 길 내 개인형 이동장치 역주행 통제 바랍니다.

2025-04-30 | 497

자차로 통학하는 학생입니다.

정문부터 팔달관으로 올라가는 길은 일방통행임에도 불구하고, 개인형 이동장치나 오토바이가 역주행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특히 팔달관 옆 길은 주차차량이 많아 도로가 좁습니다.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하는 비상식적인 행위는 보행자와 정상 주행 차량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모두가 안심하고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 (학교에 바라는 글) 전기자전거 주행 규제 요청

전기자전거 위험하게 주행하는 외국인 학생들에 대한 규제 요청

2024-10-17 | 989

안녕하세요.

금일 원천관에서 팔달관쪽으로 향하는 도로에서 역주행하여(정문 방향쪽으로 내리막에서 매우 빠르게 역주행함) 달려오는 전기자전거와 충돌하여 큰 사고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이진부터 특히 외국인 학생들이 이런 문제를 발생시키는 걸 자주 목격했는데요, 제가 사고를 당해보니 심각한 문제라는게 새삼 느껴졌습니다.

이에 대해 강력한 제재 방법을 요청드립니다. 특히 외국인 학생들이 전기 자전거를 교통수단으로 많이 이용하는데, 스로틀까지 당겨서 역주행하니 매우 위험한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해결방법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스로틀방식 전기 자전거 교내 출입 전면 금지
2. 일방 통행 방법에 어긋나는 역주행 시 현장 단속 및 학교 측에서 징계 조치

PM 이용 수칙 개정에도 잘 지켜지지 않아...

지난달 1일부터 제정된 '개인형 이동장치(이하 PM) 관련 캠퍼스 이용 수칙'이 전면 실시됐으나 일부 학우들이 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총무팀은 PM 관련 캠퍼스 이용 수칙을 개정해 PM 이용 학우들에게 ▲교내 PM 이용 불가 ▲안전 조치 필수 ▲안전 벨트 착용 필수 ▲지정 구간 주차구역 이탈 후 주차 ▲캠퍼스 전체 일방 이동 ▲PM 이용 관련 안전 수칙 준수를 요했다. 총무팀은 최근 교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안전사고 부연에 개입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용 수칙이 개정된 후에도 수칙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PM을 사용하는 학우를 포함한 학우는 "PM 이용 수칙이 변경됐음을 알고 있음에도 여전히 교내에서 시속 20km/h로 달린다. 보행자와 안전도 보장 받지 못하고 있다. 안전(물론 그) 학우는 정문 앞까지 횡단보도 건너가 버턴 뒤 걸어가는 차행을 사어로 PM 이용해 버턴도 지나간다"며 "안전 수칙이 공치위였음에도 아직 안전하지 않다"고 전했다.

- 아주대학보 기사

- 교내 도로 위험 주행: 동영상 자료(별첨)

